KT마저 서비스 접어… 메타버스 시대 이대로 저무나

열풍 꺼지자 사업 철수 잇따라… 서울시도 "10월에 끝"
네이버 제페토도 적자 '허덕'… 성공 모델 찾기 어려워

KT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종료하며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는 진행되고 있으나 확실한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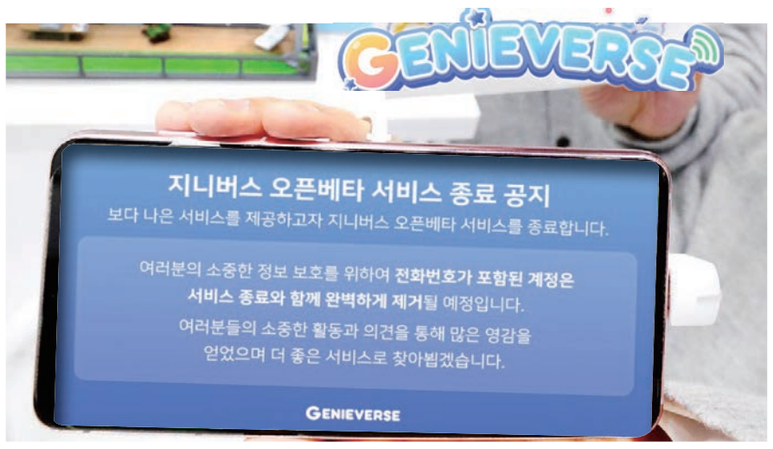
KT는 10일 지니버스 오픈베타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기업용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라운지 서비스를 종료한 데 이어 KT의 메타버스가 모두 종료된 셈이다. KT가 메타버스 사업에서 철수한 것은 아니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버스 열풍이 지나고 관심이 줄어들면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종료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는 이미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며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부 결정이 나오며 존폐가 불투명해졌다. 싸이월드 제트가 싸이월드 서비스 종료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싸이월드의 부활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버스 서울 역시 올해 10월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서울시 의회에서 나왔고 마땅한 해결책도 찾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됐다.

해외 이용자를 중심으로 3000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확보한 제페토 역시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네이버 제트의 영업손실은 852억 원으로 2022년 726억 원보다 더욱 확대됐다.



KT가 지니버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KT·지니버스 홈페이지

제페토 이용자가 확대되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전망은 몇 년 전부터 나왔으나 먼저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수익성을 강화하며 흑자로 전환하는 성공 모델이 메타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다.

역시 대표적인 메타버스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이프랜드의 경우 이프랜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SKT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프랜드의 MAU가 전 분기 대비 60만 명 줄어든 360만 명이었고 올해 1분기에는 실적 발표 자료에서 이프랜드 MAU가 빠졌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메타버스 서비스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어린이 대상 메타버스 '키즈토피아'에 이어 '픽키즈'를 출시하고 대학교 대상 메타버스 '유버스'를 출시하는 등 교육 출시하는 등 교육 특화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토피아의 경우 2023년 2월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다운로드 약 10만 회에 그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키즈토피아의 최근 한 달간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000회 아래에 머물고 있다. 픽키즈 역시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다운로드 100회 이상 정도에 그쳤다. 유버스의 경우 5월14일 '메타연세'를 공개한 이후 약 10개 대학의 가상 캠퍼스를 구축했으나 추가적인 대학교 유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물론 키즈토피아와 픽키즈의 경우 해외 이용자 또한 고려해야 하고 유버스 역시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제페토와 같이 막대한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실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대대적인 메타버스 투자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많은 상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궁극의 성능·완성도 자랑"… 베일 벗은 갤럭시 Z 폴드6·플립6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 탑재
다양한 폼팩터·진화된 AI 적용
12~18일 국내 사전 판매 진행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을 전격 공개했다. 국내 사전 판매는 12일부터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개최했다.

신규 갤럭시 Z 시리즈는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우며 듀얼 레일 힌지 구조 및 설계 강화와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 등을 통해 내구성이 강화됐다. 베이퍼 챔버를 통해 방열 시스템 역시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6와 플립6에 대해 다재다능한 폼팩터와 한 단계 진화된 갤럭시 AI를 통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갤럭시 Z 시리즈에는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 모바일 플랫폼이 탑재됐다. 삼성전자가 자체 Z 시리즈에도 자사 모바일 중앙 처리장치(AP)인 엑시노스를 탑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채용했다.

올해 초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된 갤럭시 AI는 Z시리즈에도 적용된다. 삼성 노트 앱이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번역·요약해 주고 '노트 어시스트' 기능으로 음성 녹음 텍스트 변환이 가능하다. 키워드만으로 메일 본문이나 SNS 게시글을 작성해 주는 '글쓰기' 기능과 실시간 통역 기능도 탑재된다.

또한 최신 구글 제미나이 앱이 탑재돼 정보 습득·글쓰기·계획 세우기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여타 구글 앱들과의 연계성도 강화됐다.

카메라의 경우 AI 기반 프로비주얼 엔진을 적용했으며 콘텐츠 편집을 도와주는 포토 어시스트 기능과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감상하게 해 주는 '인스턴트 슬로우 모션'은 저장과 공유가 가능해졌다.

특히 갤럭시 Z플립 6은 신규 50MP 광각·12MP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나이토그래피와 동영상 HDR로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며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도 플렉스윈도우를 통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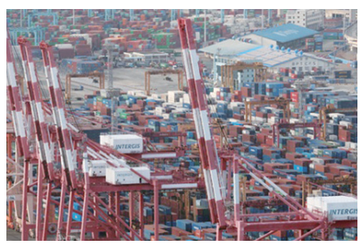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7월24일부터 갤럭시 Z 폴드6과 갤럭시 Z 플립6을 전 세계에 출시한다. 국내 사전 판매는 7월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겸 사장은 "삼성전자는 2019년 처음 폴더블 제품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는 궁극의 성능과 완성도를 자랑한다"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와 최적화된 폴더블 폼팩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수출 34% 증가… 반도체 86% 급증

이달 초 일평균 증가율 10%↑
10개월 연속 플러스 이어갈 듯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도 수출이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도 이미 수출이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열흘간 86% 급증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77억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보다 1.5일 더 많았다.

우리나라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에도 수출 증가세를 보인다면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가 이어지게 된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85.7%나 늘었다. 특히 최근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수요가 많아지며 두 자릿수의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외에도 승용차(9.8%)와 석유제품(40.5%)·철강제품(24.2%) 등도 수출이 늘었다. 반면 선박(-37.5%)·컴퓨터 주변기기(-14.1%)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29.1%)·미국(26.4%)·유럽연합(EU·26.2%)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액은 35억4700만 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 32억2300만 달러보다 많았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97억 달러로 26.7% 증가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아 무역수지는 19억5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3개월째 흑자를 보이고 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